평동산단·나주 혁신도시 등 채굴 성업…사기범죄도 기승

정부 규제에도 식지않는 비트코인 광풍

"정부 개입으로 큰 손해"
30·40대 투자자들 원성
투자사기 126명 검거
'가즈아' '흑우' 신조어 유행

국내에 몰아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은 10대 청소년부터 회사원, 공무원, 주부, 60대 은퇴자까지 우리나라 전 연령층을 파고들고 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탓이다.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광주·전남 곳곳에 가상화폐 전문 채굴장까지 들어서면서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상에 불어닥친 가상화폐 투자 열풍=회사원 이모(30·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해 말 여윳돈 200만원을 넣었는데 가격이 내려가 50만원까지 손해를 봤다가 최근 간신히 본전을 유지했는데, 다시 폭락했다"며 "조만간 신규가입자가 유입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믿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1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는 박모(46·광주시 북구)씨는 "정부에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는 않고, 시장경제에 자꾸 개입하는 바람에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다 보니 매우 불안하고, 잠조차 이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광주·전남 곳곳에 가상화폐 채굴장 성업=광주·전남 곳곳에서는 일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 놓고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채굴하는 작업장도 성업중이다.

채굴은 컴퓨터로 일종의 계산문제를 풀어 가상화폐를 얻는 방식을 일컫는다. 전문 작업자들은 최근 채굴로 가상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며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열과 전력이다.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는 일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후 가상화폐 작업장을 차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업자들이 있어 불법 운영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주택단지 한가운데에 가상화폐 전문 채굴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채굴장에서는 컴퓨터 열을 식히기 위해 환풍기를 외부로 다량 설치,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주민 민원에도, 소음기준(주간 65데시벨 이하·야간 50데시벨 이하)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

◇사기·다단계 범죄에 악용=지난해 11월 광양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째 18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916명에게 387억원을 받은 일당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둔 투자업체 한국지사를 설립한 후 1구좌 130만원을 투자하면 1일 4~12달러(한화 4000원~1만3000원)를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데리고 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도 지급하겠다"고 속인 사기단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3만5000명, 피해액은 1552억원이었다.

이들은 서울 강남 등에 투자센터를 설립하고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꾀고, 서로 보유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까지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가수 박정운(52)씨도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한탕주의'를 노린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6개월간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로 검거된 인원이 41건 126명(구속 16명)에 달한다.

◇'가즈아', '흑우', '손절' 신조어까지 유행="김프 거의 없다.", "-30% 손절치고 다시 자리 잡을까"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대화는 가상화폐 문외한이 끼어들기 힘들 정도로 온통 신조어와 은어로 가득 차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신조어는 광고·TV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가즈아'는 지난해 말 최고 유행어다. 원래 주식 투자자들이 가격상승을 염원하며 사용하는 단어로 '가자'를 길게 늘어뜨려 발음한 말이다.

지난해 말 방영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는 특집이름으로 '2018년 가즈아~!'를 사용했고, 국민의당 중앙당의 올해 시무식 건배사도 '국민의당 가즈아'를 썼다.

'김치 프리미엄'는 국내 투자 열풍으로 외국보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높은 것을 뜻한다. '손절'은 손해보고 판매했다는 뜻으로, 주로 '존버'와 같이 쓰인다. '존버'는 비속어 '오랫동안 참고 버틴다'의 줄임말로,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져도 오를 때까지 팔지 않겠다는 의미다.

'흑우', '흑두루미'도 빈번하게 사용한다. '흑우'는 비속어 '호구'가 변형된 말로, 비싼값에 사서 싼값에 파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흑우에서 한단계 더 발전한 게 '흑두루미'다. 주식에서 투자로 손해를 봤을 때 쓰는 '목이 돌아갔다'는 표현을 두루미에 빗댄 말이다. 또한 '2000층에 입주했다'의 '층'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샀던 가격대를 뜻한다. 그밖에 화폐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인 '떡상', 반대 현상인 '떡락'도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고위원회의 통합 충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홍훈희 변호사(오른쪽)와 홍성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17일 당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당원자치회 도입하고 권역별 최고위원제 사실상 폐지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 최종 추인…공천 규정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원자치회 도입과 공천 규정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당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최종 추인했다. 또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고, 당권·대권 분리는 현행 1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서갑원 전 의원(순천지역위원장) 등 8명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당무위는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당원자치회를 구성, 권리당원 10명당 1명을 중앙대의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일정한 쿼터 내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합당과 해산을 비롯해 주요 당헌 및 강령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전(全)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 선출 규정은 특별당규로 만들고,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50대 50의 비율로 투표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개정 요건을 뒀다.

아울러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 원칙을 명문화하고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 6개월 전 사퇴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선거일 150일 이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탈당 경력자'와 경선 불복자에 대해서는 경선 시 20% 감산하되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청년·노동·전략지역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로 추천한다'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경제·외교·안보와 전략공천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선출하도록 했고, 20대 청년 후보자에게는 경선 가산점을 30% 부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지역별 최고위원제 대안 마련 안건은 원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당권·대권 분리 시기를 대선 1년 6개월 전으로 못 박은 규정은 혁신안에서 배제, 사실상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위태로운 강물위 아슬아슬한 삶의 무게

김은영의 '그림 생각'

(212) '아슬아슬'

김원숙 작 '외줄타기'

추상회화의 선구였던 파울 클레(1897~1940)는 '창조에의 고백'(1919년)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예술은 보이지 않은 것, 보고 싶지 않고,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지도 모른다.

재미화가 김원숙(1953~)의 작품 '외줄타기'(1991년 작)를 처음 마주했을 때 삶과 이상, 현실과 꿈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무심한 듯 동시에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다. 어쩌면 현실 속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균형을 지켜야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전하는 것 같았다.

콸콸콸콸 세차게 흐르는 강물 위로 외줄을 타고 건너는 한 남자의 불안한 모습, 혼자서도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그 어깨 위로 이고지고 가야하는 무거운 삶이 얹혀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는 강물 위로 떨어져 멀리 흔적도 없이 흘러 떠내려 가버릴 것이다. 저 위태로운 강물을 어떻게 해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화가가 참으로 힘든 시절에 그린 그림일 거라는 지레짐작을 했는데, 일기처럼 숨김없는 고백체의 그림을 그려온 작가의 화집 '삶은, 그림'(아트북스)을 통해 우리들이 살면서 심리적으로 회피했던 내면을 정직한 시선으로 포착해 공감을 준다. 홍익대 미대에 다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공부를 마친 화가는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작품전을 했으며 1978년에는 '미국의 여성작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화가는 "멀리 보이는 따뜻한 창이 있는 집은 모두의 희망이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거꾸로'와 '바로'만큼이나 달라서 오히려 그 낙원에서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위험 속에 평화로움이, 갈등 속에 안정이, 외로움 속에 따뜻함이, 떨림 속에 고요가 있는 삶을 그리고 싶었다"고 한다.

〈광주비엔날레광주폴리부장·미술사박사〉